

광주비엔날레 '수술대' 오른다

총감독 선임·예산·인력 등 대대적 개혁

이사회,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발주키로

방만한 예산운용과 비효율적인 인력구성 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광주비엔날레가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개혁대상에는 그 동안 논란이 제기된 총감독 선임 문제를 비롯 예산, 인력 구조조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창설 12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의 변신이 주목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7일 재단 회의실에서 제90차 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엔날레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준 추천

위원회를 통해 총감독을 선발해온 것과 달리, 차기 대회부터 전국 공모 방식을 채택하자는 안건이 논의돼 총감독 선임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일부 이사들은 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해외 저명인사를 총감독으로 선임하는 국제 공모방식을 제안, 과격적인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황영성 이사는 "비엔날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총감독의 선출 문제와 감독의 권한, 업무성격 등 모든 문제들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내년 건보료 7% 오를듯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경심)은 이르면 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건보료 인상률을 제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를 7% 올리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4천원 가까운 보

험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는 1.7% 인상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의료기관 유형별로 수가 환산지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에서 후퇴,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며 보험 수가를 동결하더라도 보험료를 9.21%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연합뉴스

국민과 직접통화 정치뿐...

- 김종우



국민과 직접통화 정치뿐...

광고집수안내
광고집수안내
전화번호 : 062-227-9600 · FAX: 227-9500
국민과 직접통화 정치뿐...

광고집수안내

국민과 직접통화 정치뿐...

국민과 직접통화 정치뿐...